

한달 넘게 감옥같은 생활...“질병보다 외로움이 더 무서워”

코로나19로 갈 곳 없는 노인들

“감옥생활이 따로 없어. 이리다 우울증에 걸리겠어.”

윤모(77·광주시 북구 두암동) 할머니는 19일 오전 부라부라 웃을 쟁겨 입고 집을 나섰다. 윤 할머니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식소·경로당·문화센터 등이 문을 닫은 지난달 21일 이후, 매주 월·목요일이면 동네 종합사회복지관을 출근하듯 찾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매일 들락거리던 경로당·문화센터 대신 종합사회복지관을 자주 찾는 것은 일주일에 두 차례 나눠주는 간편식품을 받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한 또래 노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이다.

윤 할머니는 간편식품을 나눠주는 오전 11시보다 40분이나 먼저 도착해 복지관 입구에서 친구들을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무슨 소리라도 들리면 집집한 눈을 비비며 살피던 윤 할머니 얼굴에 웃음기가 번졌다. 처진 어깨가 펴지더니 힘없이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양손을 번쩍 들더니 흔들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같이 다니고 경로당에서 늦게까지 화투 치며 놀던 또래 친구 김 할머니였다. “보고 싶었어”, “몸은 괜찮고 별일 없었지?”, “왜 이제 와!” 김 할머니가 답할 틈도 주지 않고 금근한 말을 먼저 쏟아냈다. 윤 할머니

경로당·복지관 등 한달째 휴관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콕’ “이리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답답함 못 참고 공원으로 이야기 나누며 외로움 달래

는 머느리의 귀가 독축 전화를 받기까지 김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 확산에 맞서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광주 9곳·전남 28곳), 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걸어 잠근데 이어 노인교실(44곳, 44곳), 노인들 대상 문화프로그램도 중단시킨 지 한 달이 됐다. 노인들이 틈만 나면 찾던 경로당(광주 1329곳, 전남 9121곳)도 폐쇄됐고, 무료급식소(광주 27곳, 전남 145곳)도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한 지난달 18일 문을 열었다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휴관에 들어갔다.

졸지에 갈 곳을 잃어버린 노인들은 처음에는 집 안에 틀어박혔다. 윤 할머니도 그랬다. 하지만 며칠 가지 못했다. TV는 코로나 얘기만 즐기게 나와 지겨웠고, 홀로 있는 것은 더 참을 수 없었다.

질병보다 참을 수 없는 게 외로움이다.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우산동 근린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다.

노인들은 조심스럽게 또래 노인들을 찾아 나섰다.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휴관하면서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야외로, 공원으로 모여들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우산동 근린공원은 이날도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선 노인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삼삼오오 만나 장기와 바둑을 두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인근 아파트단지 놀이터와 슈퍼마켓 앞 의자에 앉아 햇살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노인들이 눈에 띄었다.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있던 박모 할머니는 “코

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닫아 종일 집에서만 지내다가 답답해 나왔다”고 했다. 광산구 우산동 빚어울체 아파트 슈퍼 앞에서 만난 임모(67) 할아버지도 “갈 곳이 없으니 날 좋은 날에는 놀이터로 모여 든다”면서 “평소 동네 경로당, 복지관을 찾는 노인들이 참 많았는데 문을 닫으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빚고을 노인건강타운에도 산책을 나온 노인들이 눈에 띄었다. 하루 평균 4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찾는 곳이지만 한 달 넘게 문이 닫힌 탓에 썰렁했다.



19일 코로나19로 무기한 휴원한 광주시 남구 빚고을노인건강타운 운동요가 교실.

마스크를 낀 채 산책하던 노인들은 그래도 혹시나 평소 만나던 노인 친구들을 만날까 산책을 하면서도 두리번거렸다.

오모(77·광주시 남구 봉선동) 할아버지는 “복지관이 문을 닫아서 친구들 못 본지 한 참됐다. 안부 전화를 걸었는데, 집에만 있어서 인지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

고 말했다. 민수용 문흥1동 경로당회장은 “경로당이 문을 닫고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 회원들이 많다”며 “경로당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상실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김민석 기자 jusbh@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19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 27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이 직접 밀반찬, 쌀, 각종 대채 식품 등을 마련,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경로당과 복지관마저 문을 닫으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무료급식소에서 배포하는 대체식품만으로는 끼니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자치회 등이 나선 것이다.

끼니 걱정 취약계층 위해 ‘훈훈한 나눔’

광주 북구 사회단체들 밀반찬 등 전달... ‘행복나눔 냉장고’도

중흥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9일 밀반찬(콩자반, 멸치볶음, 김치)을 만들어 결식 우려가 있는 15가정에 제공했다.

지난 18일에는 동림동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와 밀반찬을 50세대에 전달했고 두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햇반과 잡채를 취약계층 어르신 20분께 전달했다.

같은 날 삼각주 주민자치회와 동지역

사회협의체는 밀반찬 3종과 천마스크 70개 손세정제 35개를 취약계층 35가구에 전달하고 오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애호박찌개를 끼니를 걱정하는 취약계층 10가구에 배달했다.

또 나누고 싶은 음식을 냉장고에 채워 놓으면, 위기가정 대상자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행복나눔 냉장고’ 사업을 이용해 취약계층을 돕는 활동도 펼쳐지고

있다.

두암 3동, 용봉동, 오치 1동, 석곡동, 건국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도 행복나눔 냉장고를 운영하면서 기부 식품·식재료를 독거노인·장애인·1인 가구 등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가구는 안부 확인차 직접 전달하고 있다.

김종석 중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장은 “코로나19로 홀로 사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발생 할 것 같아 같은 동네 주민들이 직접 기본 반찬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위험한 농작물 태우기...불씨 번져 산불 매년 증가

지난 18일 오후 1시께 함평군 손불면에서 농민이 농작물을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지면서 산림 0.03ha 태우고 1시간 10분여만에 진화됐다.

전남지역 주민들의 눈·발두렁 태우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방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9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눈·발두렁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는 지난 2017년 77건을 비롯, 2018년 97건, 2019년 104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눈·발두렁 소각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전남도는 ‘전남도화재예방조례’를 근거로 논과 밭 주변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울 경우 소방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오인 출동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 등은 눈·발두렁 소각행위가 자칫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시·군을 통해 자체를 촉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모델 유인 성매매 후 협박 ‘돈 내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난 남성을 모델로 유인, 성매매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등 남·여 3명이 경찰서행.

○...1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여·20)씨는 지난 18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누문동 B모델로 C(40)씨를 유인해 성매매를 한 뒤,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

료들이 C씨에게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20만원을 빼앗는 등 협박했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C씨가 협박을 당하자 A씨 일당을 피해 모델방에 들어가 감금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C씨의 성매매행위가 드러나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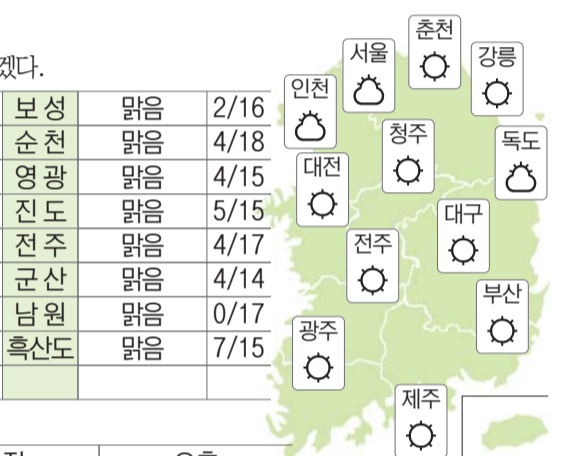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6	달뜨기	04:34
해질	18:44	달침	14:53

춘분(春分)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4/18	보성	맑음	2/16
목포	맑음	6/14	순천	맑음	4/18
여수	맑음	5/16	영광	맑음	4/15
나주	맑음	2/17	진도	맑음	5/15
완도	맑음	6/16	전주	맑음	4/17
구례	맑음	3/18	군산	맑음	4/14
강진	맑음	2/17	남원	맑음	0/17
해남	맑음	2/16	흑산도	맑음	7/15
장성	맑음	2/1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	남서~서 0.5~1.5	
	면바다(북)	서~북서 1.0~2.5	남서~서 1.0~2.0	
	면바다(남)	서~북서 1.0~2.5	남서~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	남서~서 0.5~1.5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남서~서 1.0~2.0	
	면바다(동)	서~북서 1.5~2.5	남서~서 1.0~2.0	

◇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보통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	☀	☀	☀	☀	☀	☀
7/22	11/19	4/17	4/19	6/21	9/18	11/18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 AIG | TheK손해보험 | NH손해보험